



2014 불교박람회 성황리에 회향

대중 속으로 들어간 불교 전통과 문화 한마당

지난 3월 6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막을 올린 '2014 불교박람회'가 9일까지 나흘 동안 국·내외 참관객 총 6만 2천 명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 불교 산업의 활성화와 불교문화의 대중화라는 두 가지 화두로 민간 주도로 시작된 불교박람회는 올해부터 주최가 조계종으로 바뀌면서 사업의 공신력이 강화되어 업체 및 종단 유관기관, 단체의 참여가 전년대비 약 30%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230업체, 376 부스)로 마련되었다.

'불교, 살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막한 이번 박람회는 불교와 전통문화를 예술작품으로 승화한 '제2회 붓다아트페스티벌'을 비롯하여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체험 홍보관', 문화콘텐츠를 상품으로 육성한 '불교문화상품전시관', 문서포교와 힐링 문화를 선도하는 '불교출판', 한국불교의 사상·정신적 자산인 고승전 '성철스님 특별전' 등 특별전시가 확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와의 MOU를 통해 건축, 조각, 단청, 조경 등 한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산업 업체의 참여가 증가했고, 국가가 공인한 불교건축 관련 문화재기능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국내여행 관광 상품 런칭 등을 통해 외국인 참관객을 확보했으며, 세계 최대 불교전람회인 중국 사면국제불사용품전람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행사의 국제화를 시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막식에서 "불교계는 물론 많은 시민이 동참하여 불교 산업 활성화와 정보교류의 장을 성황리에 펼쳐 관련 산업의 부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람회에 선보인 콘텐츠들은 예술성이 기본이 된 실용적 가치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만화와 조각품, 사진 등 젊은 작가들의 불교예술품 가운데 일선 포교에 활용할만한 것들에 높은 관심을 표했다.

박람회 동안 스님들의 감로법문과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울대 출신 명법스님은 '인문학과 불교미술'을 주제로 불교예술의 현대적 시



각을 제시했다. 심리학박사 서광스님은 '치유하는 불교 읽기'라는 북 콘서트를 열어 불교핵심 교리를 알기 쉽게 풀어주고 즉문즉답을 통한 유익한 법석을 펼쳤다. 좌중을 압도하는 통쾌한 법문으로 유명한 행불선원장 월호스님은 '삶은 환타지다'라는 주제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했다. 낙산사 복원에 참여한 이광복 도편수는 목재공급 과정과 한옥 시공 등 불사전반에 대한 대중강좌를 열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

기독교 신자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종교를 떠나 스님들의 식문화와 일상 소품은 물론, 스님들의 강연과 불교예술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정말 놀라웠다"고 감탄을 쏟아냈다. 한 참가자는 "불교문화가 멋스럽고 실용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 한국전통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부스에 외국인 관람객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젊은 세대들의 입장도 눈에 띄었다. 이를 통해 불교박람회를 불교라는 종교로 국한되지 않고 문화적으로 불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재계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9일 전시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 시장은 방명록에 서명하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세상을 향기롭게'라는 글을 남겼고, 성철스님전 방명록에는 '성철스님의 큰 가르침 새벽처럼 늘 가슴에 새깁니다.'라고 썼다. 박 시장은 서울시도 불교박람회가 세계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2014 불교박람회는 규모와 내용 면에서

충실을 기하고 상업주의적 성격을 최소화해 불교만의 색채와 향기로 채우면서 가장 불교적인 박람회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불교가 어떻게 현대 생활에 다가가야 하는지



불교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불교박람회는 한 단계 도약한 콘텐츠를 통해 내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올해의 열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글_ 편집부

사회복지재단, 해외긴급구호 기금 40만 달러 확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인도적 지원·관협력사업 협력단체로 선정돼 해외긴급구호 자금 4억 원을 지원받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3일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본부 내 ODA 교육원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KCOC)와 함께 '2014~15년 인도적 지원 민·관 협력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협력단체로 선정되면서 사회복지재단은 2014년과 2015년에 매년 20만 달러씩 총 40만 달러(약 4억 2800만 원)를 지원받게 됐다. 인도적 지원 민·관 협력

사업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민간단체가 효과적인 긴급구호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KOICA, KCOC가 2년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새롭게 지원 단체로 선정되며 앞으로 필리핀 태풍 하이옌 복구재건, 시리아 사태에 따른 난민 발생 등 현재 진행 중인 재난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복지재단 해외사업장이 있는 라오스, 몽골 재난예방사업을 비롯해 향후 대규모 해외재난 대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글_ 불교신문



불교박람회에서 시선 집중 불교문화사업단 : '삶에 향기를 붓다'

2014 불교박람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았던 곳은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 불교 문화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한국불교문화 사업단 전시장이었다.

'삶에 향기를 붓다: 템플스테이 & 사찰 음식'을 주제로 마련된 전시장에는 평소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되어, 참가자들에게 불교문화 체험의 기회를 선사했다. 만다라 손수건 그리기나 단청 그리기, 컵등 만들기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정성 들인 작품을 손에 들고 하나같이 기뻐했다. 또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가장 인상 깊은 시간으로 꼽는 스님과의 차담 '행복을 마셔요' 코너도 마련돼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했다. 박람회 에서 사람과 시간에 쫓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면, 언제라도 조계사 건너편에 자리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프로그램

조계사 건너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는 대중들이 더 자주, 더 가깝게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 스님과의 차담

(월~금요일 / 오전 9시~오후 6시)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프로그램

◇ 인경체험

(화, 목, 금요일 / 오전 11시~오후 3시)

목판에 새겨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이 에 인쇄하는 체험으로 내방객들이 한국전통문화를 경험해 보게 하는 프로그램

◇ 만다라 체험

(수, 토, 일요일 / 오전 10시~오후 5시)

만다라(曼荼羅, Mandala)의 어근 manda는 '참' 또는 '본질'을 의미하고, 접미사 la는 '성취'를 의미한다. 즉 만다라를 수행하는 것은 중심과 본질을 얻는 것, 마음속에 참됨을 갖추고 본질을 원만히 하는 것이다. 특히, 만다라는 인간의 내적 존재를 밝혀주고, 균형을 이루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명상치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자기실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마음의 고요와 침착함을 느끼고, 자신을 수용하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견하며, 정신의 집중과 동시에 이완을 할 수 있는 심리치료 효과까지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월 19일 불교문화원형을 발굴하고 한국불교의 문화적 가치를 잘

▼ 통합정보센터에서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간단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반영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했던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천왕페이퍼토이', '연화등잔', 연봉우리를 모티브로 한 연봉매듭 브로치, 목탁 모양의 자물쇠 '똑!똑!똑!' 등이 전시되고, 사업단이 자체 개발한 엽서,

문구류, 홍보 기념품 등 전통문화의 특색을 살린 상품들도 전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영어가 가능한 스님이 상주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www.kbuddhism.com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 선정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가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3월 18일 오후 3시 교내 백상관에서 이민자사회통합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이민자의 사회적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포,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과정과 언어, 헌법적 가치, 기초법질서, 정치, 경제 등 사회영역 전반을 포함하는 기초소양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울산 2 거점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거점 내 5개 일반 운영기관의 학사와 강사 관리를 총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운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이다.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이민자의 사회적 및 정착을 지원하고,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다문

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정착을 지원, 이민자와 지역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화합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찬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교류처장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과정 프로그램과 각종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의 우수성이 이번 거점운영기관 선정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며 "거점 운영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의 2013년 신규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교육부 GKS 우수 교환학생 지원 사업 선정, 201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제화 부문 전국 17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화 부문에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민자사회통합센터 054-770-2962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발족

조계종 총무원 산하 연등회보존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청년회 참교육문화사업단이 주관하는 사업인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식이 지난 3월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는 중요무형문화재 122호인 연등회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외국인 홍보사절단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한 연등회의 국제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10일과 11일 이틀 간 면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한국인 50명과 미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21개국 외국인 50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에는 켄데스 콜과 켈리 콜 모녀, 수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인도인 슈레쉬 쿠마르 부부,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복무 중인 에릭 휘셀 부부 등 가족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3월 22일 서울 길상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원봉사교육을 받으며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4월 6일에

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 자원봉사를 하며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연등회와 한국의 역사, 전통문화 등에 대해 강의도 받는다. 4월1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점등식에는 '플래시몹' 행사로 참여하며 4월 25~27일 연등회 기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불교문화체험과 길 안내, 통역 등의 자원봉사를 수행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해일 스님은 "각국의 친구들과 함께 세계적인 문화축제 연등회를 중심으로 불교문화를 배우고 즐기게 될 것"이라며 "스스로 축제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축제기간 내내 행복한 기운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에 교환학생으로 유학 온 핀란드 출신 잉그리트 피로넨 씨(21)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들과 좀 더 친해지기 위해 서포터즈에 참여하게 됐다."며 "한국불교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연등회의 흥겨움을 어서 실감하고 싶다."고 말했다.

참교육문화사업단 02-738-7920



더프라이스, 로터스월드 국제개발협력 NGO를 위한 현장평가 사례 나눔

미얀마에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온 불교계의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 NGO인 더프라이스와 로터스월드가 중소기업 국제개발협력 NGO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더프라이스의 '미얀마 낮마옥 지역 보건위생 사업 현장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3월 11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지하 교육관에서 개최된 사례 나눔 간담회에는 60여 명의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최근 한국 국제개발협력 NGO 활동가들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20여 년이라는 짧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빈곤지역에서 빈곤퇴치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교육, 보건위생, 소득 증대, 지역개발 등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 단체들의 수가 최근 수백 여 곳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개발협력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사업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처럼 한국의 개발협력 NGO들이 평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단체들이 사업평가를 진행하는 데에는 적잖은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른다. 국제적인 개발협력 NGO와 UN 기구, OECD 등이 발간한 평가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대부분이 대규모 개발사업 평가용이라서 중소기업 단체들의 사업평가에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높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프라이스와 로터스월드와 같이 평가를 위한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NGO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과정이나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러한 평가를 통해서 지역적 맥락과 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하고 효율성 있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던 더프라이스, 로터스월드 두

단체가 2012년 4월부터 평가에 대한 학습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더프라이스가 2011년 미얀마 낮마옥에서 수행했던 '낮마옥 보건위생사업' 평가사업에 대하여 2013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고 두 단체가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서 중소기업 개발협력 NGO들과 현장평가 사례를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현장평가 사례 나눔에서 두 단체 실무자들은 2012년 시작된 두 단체의 평가학습 과정에서부터, 2013년 12월 초 두 단체가 공동으로 미얀마 낮마옥을 방문하여 보건위생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기까지의 준비과정, 한국 평가 전문가의 의견과 미얀마 현지 전문가와의 협력, 평가 후 데

이터 분석과 평가보고서 작성, 지역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드백까지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소개하였다. 한편, 참석한 활동가들은 평가과정과 사후 사업기획 시 평가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더프라이스, 로터스월드가 공동주관한 현장평가 사례 나눔은 한국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단체 간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또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는 한편 주민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두 단체의 문제 인식을 보여주고 NGO 활동가들과 이를 공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 더불어 2013년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미얀마와 한국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미얀마 현지 활동가 교육', 강연회 '태국 SEM으로부터 배우는 임파워먼트 사례' 등을 통해서 상호신뢰를 쌓아온 더프라이스와 로터스월드가 지속적인 협력과 협업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_ 로터스월드 민정희국장

국제연꽃마을, 베트남 안면 기형자 10명 수술 서울의료봉사재단과 현지에서 진행

'국제연꽃마을(회장 각현스님)'과 '서울의료봉사재단(이사장 조병욱)'은 지난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베트남 광남성 탐키시에 위치한 광남성 병원에서 안면 기형 장애인 10명에 대한 수술을 무사히 끝냈다.

이번 베트남 현지인의 구순구개열(안면기형자) 수술은 '국제연꽃마을'과 '서울의료봉사재단'이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첫 번째 사업이다. 협약 내용은 '국제연꽃마을'은 현지의 NGO 법인을 활용하여, 안면 기형자 발굴, 교통편의 제공, 병원 수술실과 입원비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서울의료봉사재단'은 한국의 전문 의료진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하여 수술에 참여케 하는 것이었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연꽃마을'은 지난해 8월에 현지의 '광남성노인장애인민간자협회'를 통해 신문과 방송 등 현지 언론과 각 기관에 홍보하여 46명의 안면 기형자를 발굴, 일일이 건강상태를 조사하였으나 너무 어렵고, 병약하여 마취할 수 없다는 마취의사의 진단으로 부득이 10명만 수술을 완료하게 되었다. 수술자 중에는 어린 아동뿐 아니라 결혼한 주부도 2명이나 있어 눈길을 끌었다.

'국제연꽃마을' 회장 각현 스님은 "안면 기형자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일반인들과 함께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아주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울의료봉사재단과 함께 베트남의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안면기형자 수술 봉사에는 전문의 4명, 전공의 4명과 각 법인의 2명의 사무총장과 국제연꽃마을 현지 법인 이기찬 총감독 등 11명이 함께 했다.

한편 '국제연꽃마을'과 '서울의료봉사재단'은 3개월 전에 화물로 운송된 유니트체어(저과 장비) 2대를 탐키시 보건소에 안치하고 기증식을 하기도 했다.

국제연꽃마을은 베트남의 사회복지 지원 법인으로 베트남 중부지역(월남전 당시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곳) 광남성 탐키시 거주 학생들에게 2005년부터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2010년 광남성장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받아 세종학당·직업교육원·어린이집·요양원·양한방 병원·연수원 등을 건립하기로 양해각서와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국제연꽃마을 www.ilv.kr

월드머시코리아, 올해 활동계획 발표 국내외 불교 인재 육성에 중점

월드머시코리아는 지난 2월27일 서울 여의도포교원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4년 사업계획으로 △베트남 학습환경 개선 사업 △미얀마 장학금 지원사업 △영등포 관내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 △정읍 빈곤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종립대 학생 장학금 지원 △군부대 지원 사업 △동국대 참사랑 봉사 연계사업 등을 전개할 것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점은 인재 불사를 위한 지속적인 장학사업이다. 지난해 국내외 학생들을 위해 1억2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약 1억 원 상당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연계한 학생 40명에게 연간 총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교육 등 멘토교육도 진행한다. 정읍 지역 학생 20명에게도 총 1440만 원을 후원한다. 대학생의 경우 일반대학은 5명에게 연 1회 100만 원, 종립 동국대는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학생 10명에게 연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 지원도 진행해 국내 대학에 유학 온 아시아지역 승려유학생들 3명에게 여학원 등록비 및 대학등록금, 생활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외 장학 사업도 중점 사업이다. 특히 베트남 푸엔성과 호치민시 등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3개 부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지역에서 장학사업을 펼치는 것은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 화폐로 약 45억 동(한화 약 2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장학금 지원(학생 500여



명), 학교건립 및 기존학교 리모델링이 포함된다. 푸엔성 어린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1곳을 건립할 예정이며, 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 1곳을 선정해 리모델링과 화장실을 신축한다.

2012년 월드머시코리아가 지원해 건립한 미얀마 레부고등학교 학생 116명 장학금 지원 등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손해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국제 구호활동도 진행되며 동국대 참사랑봉사단과 함께 해외봉사를 할 예정이다.

현진 스님은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무지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지구촌에 산재해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교육과 복지 지원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시민사회단체의 기여와 참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할 때"라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월드머시코리아는 '나와 세상이 불이(不二)이며, 자비 실천이 인류 구원'이란 모토로 2011년 3월 출범한 국제구호 NGO로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NGO 네트워크를 통한 각종 캠페인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월드머시코리아 후원문의 070-4411-9136



허핑턴포스트 창설자 한국불교를 만나다

마곡사 방문, 법륜스님과 토크 콘서트

미국 내 방문자 수 1위 언론사 홈페이지는 어디일까? 놀랍게도 뉴욕타임스나 CNN,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닌, 허핑턴포스트(The Huffington Post)이다. 허핑턴 포스트는 미국의 자유계열 인터넷 신문이다. 다양한 칼럼니스트가 집필하는 블로그, 정치, 미디어,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생활, 환경 운동, 세계 뉴스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2005년 5월, 허핑턴포스트를 창간한 아리아나 허핑턴은 주지사로 출마했으나 낙선, 그때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하고 허핑턴포스트를 창립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55세였다. 타임지는 그녀를 2006년, 201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꼽았으며 '포브스'는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했다. 허핑턴 포스트 한국판(<http://www.huffingtonpost.kr>) 창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짧은 일정 동안에도 한국불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선방에서 스님께 좌선하는 법 배우

허핑턴 회장은 지난 2월27일 제6교구본사 마곡사를 방문해 주지 원경스님과 환담을 했다. 명상에 관심이 많아 사찰을 찾았다는 허핑턴 회장은 “한국에도 처음 왔지만, 사찰도 마곡사가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인데 마음이 평온하고 평화로워지는 느낌”이라며 “건물도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아름답다.”고 말했다.

원경스님은 “일체유심조로 세상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행복도 불행도 모두 내가 만든다.”며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행복이 저절로 온다.”고 말했다. 또 “불교의 근본정신은 자리이타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도 알려주고 행복을 전하는 멋진 언론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교종교학을 전공하고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명상을 하고 있다는 허핑턴 회장은 원경스님과 차담을 나누고 사찰을 둘러보았으며, 스님들의 수행처인 태화선원 선방에서 좌선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소셜 미디어의 여왕이라는 칭호답게 그녀는 마곡사 방문 후 트위터에 감동을 전했다. “아름다운 산사의 발우공양과 장엄한 사찰 마곡사 주변을 산책하고 약효가 있으면서도 맛이 풍부한 한국의 차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국화차와 제비꽃차를 뉴욕으로 가져갑니다. 앞으로 티백차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28일 서대문구 엔에이치(NH)아트홀에서는 법륜스님과 허핑턴 회장의 토크 콘서트



가 열렸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던 그녀는 객석을 꽉 찬 400여 명 관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저는 한동안 오직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2006년에 과로로 쓰

러지면서 머리를 책상에 부딪쳐 광대뼈가 부러지고 눈 밑을 4cm나 꺾매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성 공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잣대로 보면 바닥에 쓰러진 제가 무슨 행복입니까? 저는 그때 삶의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노동시간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지적하듯 허핑턴 회장은 특별히 부탁했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베풀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고대부터 내려온 마음 수행법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해 더욱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마곡사 www.magoksa.or.kr

커티스 한미연합사령관 일행 낙산사 방문

세계와 한반도 평화 기원 타종과 사찰음식 공양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부부 일행이 지난 15일 양양 낙산사를 방문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했다.

2013년 10월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취임한 커티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미국 육군 대장으로 주한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으며, 이번 낙산사 방문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한국 국민과 더욱 가까워지려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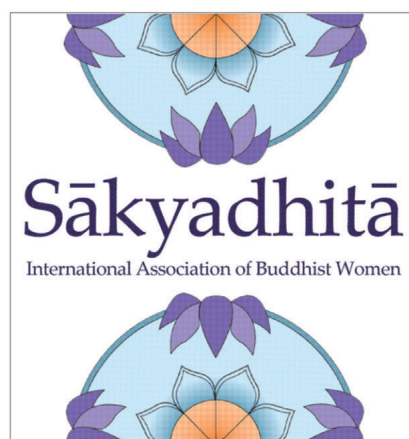


커티스 사령관과 박선우 한미연합부사령관 부부, 김유근 육군 제8군단장 부부는 낙산사 주지 도후스님으로부터 낙산사의 창건과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의상대를 거쳐 해수관음상에 도착해 동해의 일출과 설악산의 설경을 함께 감상했다. 일행은 이어 원통보전에서 낙산사 소실과 복원의 역사를 되새긴 뒤 낙산사 범종루를 찾아 세계와 한반도, 동해지역, 모든 생명체의 평화를 기원하고 한국 전쟁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는 타종을 하고 낙산사에서 마련한 전통사찰음식으로 아침공양을 함께 나눴다. 커티스 사령관은 “낙산사와 동해, 설악산의 풍경이 아주 아름답다.”고 말했으며, 낙산사 주지 도후스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감사인사를 건넸다. 낙산사 www.naksansa.or.kr

샤카디타 코리아, 총회 및 여성 안거수행 개최 2015년 인도네시아 대회 논문 발표 접수

지난해 7월에 발족한 샤카디타 코리아(공동대표 조은수)는 올 2월에 총회를 통해 회칙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조직의 틀을 정비하였으며, 2014년 사업목표와 계획을 설정하였다.

샤카디타 코리아는 여성 지도자의 불교관을 정립하고 샤카디타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하여 매달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북클럽을 정례화 하는 한편 ‘여성을 위한 안거’ 수행을 연2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 15일에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불교여성연구소와 공동으로 유서 깊고 아름다운 사찰인 진관사에서 첫 안거수행을 진행하였다. ‘도심 속에서의 안거’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안거에는 회원 뿐 아니라 명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미국 샤카디타 회원이자 심리치료사인 켄 왓츠 박사가 참석했으며, 거창 부다선원의 진경스님께서 아나빠따 사띠 수행법을 소개하고 명상 지도와 질의응답을 이끌어주셨다. 대학 시절에 불교를 처음 접한 후 꾸준히 명상수행을 하고 있다는 왓츠 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면서 한국사찰에서 묵고 함께 참선하는 기회를 제공한 샤카디타 코리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진관사에서 특별히 차려낸 봄 내음 가득한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을 하고 정갈하게 차려진 다과상을 앞에 두고 차담을 나누었는데,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명상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2015년 7월에는 ‘자비와 사회정의(Compassion and Social Justice)’를 주제로 제14차 세계불교여성대회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다. 샤카디타 코리아 홈페이지에 자세한 일정과 다양한 패널 주제 및 워크숍 주제가 영문과 한글번역본으로 공지되어 있다. 패널 발표에 관심 있는 분은 먼저 2014년 5월 15일까지 250~500단어 분량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락 통지를 받게 되면 2500단어 분량의 원고를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성별, 국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불교를 믿는 여성과 관련된 단편영화나 파워포인트 발표(10~15분 길이)도 가능하며 대회기간 동안 마음을 깨우는 운동(스트레칭, 기공, 요가, 태극권 등)을 진행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참가자도 환영한다.

글_ 샤카디타 코리아

미국 예일대 학생들 금정총림 범어사 방문

미국 명문 예일대 MBA SoM(School of Management) 과정 재학생 30여명이 3월 16일 금정총림 범어사를 찾아 한국불교를 체험했다.

이날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예일대 학생들과 차담을 나누며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불교는 무명(無明)을 밝히고 지혜를 깨우치는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예일대 학생들은 한국불교에 깊은 관심을 표하면서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앞서 학생들은 범어사 연수국장 오산스님의 안내로 도량을 돌아보며 한국불교 문화를 익히기도 했다.

예일대 MBA SoM은 매년 해외 유명 기업을 탐방해 그 기업의 독창적 경영 방식, 차별화된 경쟁력을 배우고 기업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번째 한국을 방문한 예일대 MBA SoM



은 올해는 2일 SM엔터테인먼트 방문에 이어, 삼성전자, 신한금융그룹, 현대자동차, POSCO, 카카오뱅크 등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번 방한에는 한국인 신지웅 교수를 비롯한 지도교수 3명과, MBA재학생 28명이 함께 했다.

예일대에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 신지웅 교수는 올해로 3년 째 SoM 과정을 운영하며 예일대 MBA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다.

글_ 불교신문



▲ 작가 김경호

김경호 뉴욕 사경 초대전 평생의 역작 2점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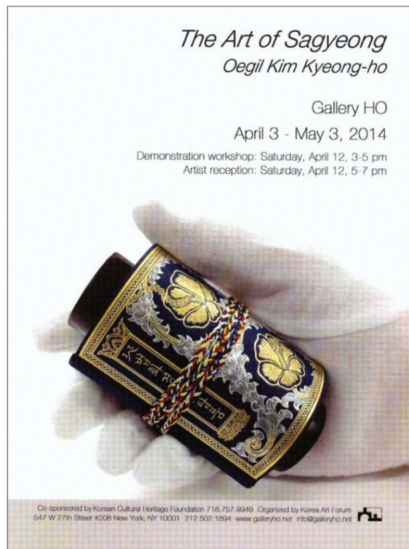
▼ 초대전 포스터

사경(寫經)은 불교 경전을 손으로 베끼거나 그린 것을 부르는 말이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 경전의 보급과 유통에 쓰였으나, 이제는 수행의 일환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4세기 초부터 발전해 17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번 '외길 김경호 전통사경전'은 오는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갤러리 호(547 웨스트 27스트리트)에서 이어진다. 전시 외에도 4월 12일 오후 3시에는 실제 사경 과정을 선보이는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며, 오후 5시에는 전시 오프닝 리셉션으로 이어진다.

전시회에는 대한민국 유일의 전통사경 기능전수자인 김경호 씨가 그간 혼신의 힘으로 완성한 '감지금니7층보탑 법화경 견보탑품'과 '감지금니 일불일자 화엄경 약찬게'를 선보인다. 2점의 작품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몇 번의 전시 과정을 거쳐 이번에 새롭게 공을 들였다. 고려 전통사경 양식을 발전시킨 작품으로 작가 스스로 생애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씨는 기존 전통 사경 작업을 비롯해 금·은·묵 등을 이용해 글과 그림을 그리는 현대적인 장르도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



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한국전통사경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 3월 뉴욕한국문화원 초대로 뉴욕에서 첫 전시회를 가진 이래 2012년 10월 12일 ~ 12월 30일까지 뉴욕 플러싱 타운홀의 한국사경연구회원 초대전에서 6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뉴욕 퀸즈 자치구 의장은 전시회 첫날인 10월 12일을 <외길 김경호의 날>로 선포했고 뉴욕시 감사원장은 표창장을 수여했다.

글_ 편집부

미남가주, 재가 단체 우담바라회 회지 18집 발간



남가주 재가 불교 신행 단체인 우담바라회(회장 이원익)가 회지인 우담바라 18집을 발간했다. 1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이 회지는 우담바라회 회원들과 외부 인사들의 시, 수필, 단편소설, 여행기, 논서와 해설 등 삶의 현장에서 겪은 진솔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다. 편집을 맡은 김관지 거사는 "일 년 동안 각자의 신행과 정진, 번뇌와 법업, 환희와 고통의 순간들을 모아 엮은 책"이라고 표현했다.

우담바라회에 관한 문의나 회지를 원하시는 분은 편집장 김관지 거사(+1-949-212-8884, kim.wongill@gmail.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글_ SF 한국일보

제6회 미동부 청소년 한국문화체험 연수단 모집

차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의 뿌리인 불교 문화를 Temple Stay 체험으로 알게 하고,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배움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미동부에 거주, 또는 재학중인 8학년 이상 학생 (대학생 포함) 2014년 9월 기준
- 일정: 2014년 7월 7일 월요일 ~ 7월 16일 수요일 (7월 6일 출발)
- 인원: 30명
- 참가비: \$2,400.00 (한국 왕복 항공료, 연수비용 일체) KBS of GNY INC.
- 신청접수: 2014년 4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진첨부), 자기소개서 1부, 여권사본 1부 (서류 접수후 인터뷰 일정은 각자 통보)
- 신청접수주소: 104 Route 303, Tappan, NY 10983
Attn: 미동부 청소년 한국불교 문화 체험연수단
Tel: 917.533.8175
E-mail: nybulkyosindo@gmail.com

주최: 미동부청소년한국불교문화체험연수단 뉴욕불교신도회
주관: 미동부 해외특별교구 | 국제불교학교 |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업단, 국제부
후원: 한국관광공사

꿈과 희망이 꿈틀대는 미 대륙으로...

미 동·서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한미 청소년 교류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2011년부터 한국청소년이 미 동·서부지역을 방문, 현지 교포학생들과 교류할 뿐만 아니라 매년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미동부지역 청소년이 고국을 방문 시 우리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원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4회 한·미 청소년 불교문화 연수단 모집

• 일시	2014년 8월 7일 ~ 17일 (10박 11일)
• 장소	미국 서부지역(LA, 샌프란시스코, 그랜드캐니언 등)
• 대상	열심히 수행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 청소년부(주지스님 추천)
• 인원	선착순 20명
• 지도법사	한국 - 정법스님(케이빈 대표), 광원스님(부산·울산·경남, 도제스님(광주) 미국 - 원전스님(사부), 지호스님(동부)
• 참가비	한국학생 - 350만원 / 미국학생 - 별도 공지
• 준비물	추후 공지
• 신청기간	2014년 4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dourim.net 접속 후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매일송부_ kbin8985@naver.com / 팩스송부_ 02-733-8985
• 신청금	100만원
• 문의	한국 케이빈 선전화 010-5504-8154 / kbin8985@naver.com 미서부 원전스님 +1-510-717-5181 / ehdgok@hanmail.net 미동부 지호스님 +1-718-440-2112 / boohijho@gmail.com
• 프로그램	UC버클리, 스탠포드, UCLA 대학 탐방 그랜드캐니언, 태평양 연안, 금문교, 할리우드 관광 살리몬밸리, 인텔 뮤지엄, 사막센터 방문 LA 테고사, LA 정에서 등 순례 (※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조계사, 수덕사, 국제선센터, 불은사, 화계사, 육전암, 부산 비안선원, 광주 김상사, 뉴욕 불광선원, LA 테고사, LA 정에서, 미동부청소년 한국문화체험 연수단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조계사, 수덕사, 국제선센터, 불은사, 화계사, 육전암, 부산 비안선원, 광주 김상사, 뉴욕 불광선원, LA 테고사, LA 정에서, 미동부청소년 한국문화체험 연수단

디지털 문화로 포교와 자선 활동 관리

템피(애리조나), 미국 - 그간 많은 연구가 인터넷이나 SNS 등이 종교적 권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 데 비해 이에 반대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폴린 호프 청 교수는 대만자제공덕회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최근 학회지에 발표하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사용을 통해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이 신도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맺어진 친밀한 관계는 더 많은 지원과 신뢰를 가져다준다고 주장했다.

자제공덕회는 1966년 29세의 비구니스님에 의해 창설되었다. 불교의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상이 아닌 혁신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사회 활동을 전개하면서 현재 전 세계 50여 개 나라에 약 천만 명의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많은 회원에게 매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자제공덕회가 발견한 방법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문화의 활용이었다. 인터넷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 세계 회원들이 구조 활동

과 자원 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고무한다.

“관리자와 회원들이 인터넷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단체의 비전과 사명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일상적 소통을 통해 거대한 조직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매체의 활용은 영적 지식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일체감, 소속감, 사회 활동에 대한 헌신 등을 고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자제공덕회는 인터넷상에서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언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키보드의 몇몇 글자들로 이모티콘과 같은 아이콘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혹은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등과 같은 뜻을 전한다.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이러한 특정한 종교적 상징과 의사소통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의 수많은 회원에게 한가족이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

자제공덕회는 이외에도 유튜브에 법문이나 만트라, 수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불교의 사회 참여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러한 미디어 기술의 활용은 불교가 더 깊은 영적, 사회적 활동을 펼치는데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Religion News Service [2014. 3. 13]

애들레이드 해변에 거대 불교 단지 건립 확정

애들레이드, 호주 - 20여 년 동안 미루어져 온 거대한 불사(천백만 달러 소요 예정)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셀틱스 힐에 위치하게 될 이 광대한 불교 단지에는 18m 높이의 부처상, 35m 높이의 탑, 사원 그리고 중국식 정원이 들어서게 된다.

1997년 난 하이 푸 타오 사원이 계획했던 사찰 건립이 교통안전, 경관 훼손, 소음 유발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오랫동안 미루어졌다가 마침내 주 정부 개발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게 된 것이다. 사원 대변인에 의하면 건축물들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풍수 사상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설계될 것이다. 원래는 청동으로 세워질 예정이었던 부처상도 해변이라는 지역 조건을 고려해서 관리상의 이유로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 화강암으로 변경되었다.

“바다를 향해 세워질 부처상은 이 지역

에 평화, 조화,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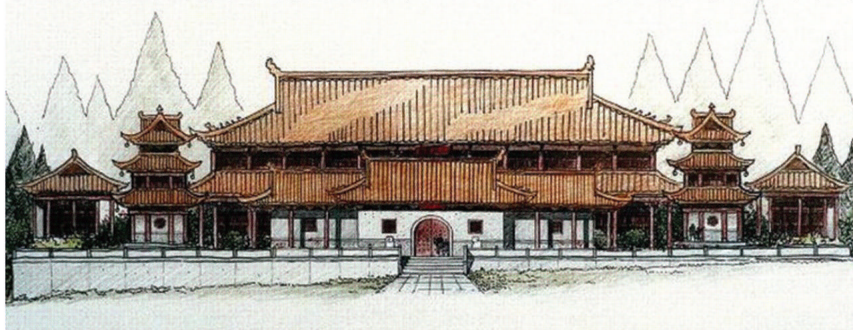
부처상은 내년 2월에 완공되고, 다른 시설들은 5년 후에 공사가 마무리된다. 사원은 이곳에서 상담, 명상, 휴양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처음과는 달리 이제 대부분의 주민과 관광 관련 종사자들은 이 건축계획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호주는 이제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 불교 단지 건립은 이 지역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사원 건립은 우리 사회를 더 결속시키고 또 이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건립되는 사원은 연간 약 2만 명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news.com.au [2014. 2. 21]



인도의 허술한 불교문화재 관리에 문제 제기

비사카파트남, 인도 - 인타치(인도예술과 문화유산신탁, INTACH: Indian Trust for Art and Cultural Heritages) 회원들이 톨라콘다와 바비콘다 지역의 세계적인 불교유적지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는 불교유적지에 대한 관광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인타치 회원들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당국의 관리 태만에 대해 법적 행동을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들은 고대유물과 관광과가 유적의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회원은 2009년에 당시 수상과 의회의 부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고고학과 관리가 솔직히 ASI(인도 고고학연구소, The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의 기준에 따라 유적을 관리할 기술도 인력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ASI가 정부로부터 그 유적지

들을 인수받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편지를 받고 조사 나온 관리도 이 지역들이 2300년도 더 오래된 곳들이니 ASI가 관리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인타치 회원들은 한 달 전에 톨라콘다와 바비콘다의 부조 유적지에서 관광객들이 숙박한 사실을 알아냈다. “유물국에서는 관광객들이 하도 간청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의 요구가 유적지 관리보다 더 중요합니까?”

회원들은 또한 바비콘다 유적지의 땅 일부가 주택사업 용지로 전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정부 당국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인타치는 고대유물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관광이라는 핑계로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들이 더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TNN [2014. 3. 15]

불교의 선(禪)을 주제로 한 호텔 개업

베이징, 중국 - 중국 산시성(山西省)에 위치한 불교의 성지 오대산에 선을 주제로 한 호텔이 문을 열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 재가 불교 신도의 웃을 입고 있는 종사자들의 접대를 받게 되며 법문소리와 향내음 등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선 스타일로 꾸며진 식당은 5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경전방에서는 불교의 경전을 읽고 염불을 체험할 수 있다.



People's Daily Online [2014. 3. 24]

불교단체들 합동으로 무료의료혜택 펼쳐

세쿰더바드, 인도 - 불광국제협회와 아난다 붓다 비하르 트러스트는 안드라 프라데쉬주(州)의 세쿰더바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 행사를 가졌다.

대만 불광산사의 불광국제협회는 세계적인 자선활동으로 유명하며 인도의 불우한 주민들에게 종교 교육과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난다 붓다 비하르 트러스트는 인도 내에서 활발한 박애 활동으로 알려져 있고, 마헨드라 지역에 있다. 불교의 부활과 포교, 문화 보존을 위해 명상, 다르마 강의, 그 외 불교 관련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무료진료행사는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아폴로 병원의 심장과, 정형외과, 영양학과 전문의들이 진료와 상담을 담당하고 혈액테스트, 심전도테스트 등이 이루어졌다. 가난한 주



민들에게 기본 의약품들을 무료로 나눠 주기도 했다. 이 행사는 건강에 대한 의식을 환기하면서 동시에 불교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다.

불광산사와 아난다 붓다 비하르 트러스트의 공조는 앞으로 중국과 인도의 불교 자선단체들이 함께 협력해나가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3. 17]

불교, 재소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다

데이тона 비치(플로리다), 미국 - 53세의 존 킹햄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고 30년간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불교를 알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승려로서 수계도 받았다.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게 스스로 묻게 되죠.’”

킹햄은 자라면서 잭 케루악이나 앨런 긴스버그의 소설이나 시를 통해 불교를 접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한 것은 강도와 코카인 복용으로 수감되면서이다. 14년 정도 수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수행 생활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니 이곳에서의 삶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 6시에 식사를 받으려고 줄 서 있으면 누군가가 왜 줄이 빨리 줄어지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은 음식이 형편없다고 불평하죠. 같이 소리칠 수도 있고 이 상황이 지겹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는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옆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들의 고통이 끝나기를. 소리치고 있는 저 사람의 고통과 고통이 끝나기를.’

불교 모임은 2006년에 세키오 설리번 법사와 폴 커민스 스님의 자원봉사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30여 명이 참석해 명상 지도, 예불,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간 약 150명 정도가 이 모임에 참석했다.

가택 침입 절도, 유괴, 폭행 등의 죄로 종신형을 복역 중인 44살의 제임스 페레즈는 교도소에서 불교를 알게 되었고, 매주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는 불교 덕분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수행에 역점을 두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설리번 법사는 그동안의 변화를 재소자들의 공으로 돌린다.

“재소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그건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준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처님이 그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이전에 토모카교도소에서 복역한 캔달 하이터는 그곳에서의 불교 수행 덕분에 마약 중독, 범죄, 교도소 수감이라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불교는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불교를 통해 책임감을 배웠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대신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43세인 그는 현재 자동차 창문 도색 공장에서 일하면서 출장음식 서빙도 한다. 최근 경찰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음식 서빙을 했다. “중죄를 지어 복역하고 출감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행사장에서 정부 고위관리들과 함께 나란히 있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삶이란 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Jim Haug, news-jrnl.com [2014. 2. 20]



▼ (좌측부터) 토모카 교도소, 제임스 페레즈, 존 킹햄

역사적인 마하무니 사원 보수 후 새롭게 개원

다카,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불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마하무니 사원이 오랜 복원 작업을 거쳐 1월 31일 마침내 개원식을 가졌다. 국내외에서 마련된 성금으로 완성된 이 사원은 미얀마의 라킨주(라)에 있는 마하무니 부처상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던 것으로 서기 164년에 세워진 이 부처상은 뛰어난 신통력으로 유명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1800년대에 방글라데시에서 정통 불교가 쇠퇴하고 사람들이 불교를 가장한 사교에 빠져있을 때 치타공의 카인이 타우어 스님이 이 부처상을 참배하고 환희심을 일으켜 1813년, 자신의 마을에 이 부처상을 복제한 상을 세웠다. 이 부처상 역시 마하무니라고 불렸으며 마을은 마하무니 마

을로 알려졌다. 마하무니 부처상이 세워진 후 방글라데시에서 다시 테라바다 불교가 부흥하게 되었고 방글라데시 최고 승가위원회의 초대 승왕인 사라메다 마하테라 성하(1801~1882)가 치타공에 와서 정통 불교의 가르침을 펼쳤다. 이런 이유로 마하무니 사원의 마하무니 부처상은 방글라데시 불교 부흥의 대명사로 유명해졌으며 불교 관련 축제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찾았던 마하무니 사원 성지는 이번 개보수 작업으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쉼터로 자리매김할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3. 19]



종교차별 항의 소송에서 불교 학생 승소

뉴올리언스, 미국 - 기독교 신앙을 강권하던 루이지애나의 학교에 대한 소송에서 아들이 불교도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한 부모의 주장이 승소했다. 부모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의 주장에 의하면 네그릿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불교도 학생에게 불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으며, 학교도 또한 정기적으로 수업시간과 학교 행사 때에 기독교식 기도를 하도록 했고, 교실 전면의 전자 보드에는 성경 구절이 계속 비춰주고 있다고 한다. 법정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많은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 관리자들은 종교 활동을 장려하거나 금지할 수 없으며, 종교 서적을 읽어오라고 과제를 낼 수도 없고, 종교 교육을 목표로 삼을 수 없으며, 수업이나 학교 행사에서 개인의 신앙을 드러낼 수 없다.

“어떤 어린이도 교사가 신앙을 강요한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 합의 사항들은 해당 지역 학교에서 더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루이지애나 ACLU의 책임자가 말했다.

문제는 태국부모에게서 태어나 불교도

▼ 네그릿 고등학교 홈페이지



로 성장한 학생이 종교적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면서 시작되었다. 라타 로아크라는 이름의 교사는 “세상이 6천 년 전 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성경 말씀은 모두 올바른 진화설은 잘못된 것이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녀가 낸 시험문제는 다음과 같다: “00이 창조하신 것들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이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주님’이었는데 문제 학생이 이 답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는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 학생을 비하했다. 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학교 측은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근처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했다.

법정 합의문에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통학하느라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에 대한 위자료로 4천 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앞으로의 통학비도 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The bangkok Post [2014. 3. 15]

모스크바에 첫 불교 사원 생긴다

모스크바, 러시아 - 모스크바의 오프라드노에 지역에 문화센터, 의료센터, 회의실, 식당 등을 갖춘 첫 불교 사원이 건립된다. 2000년대 초반에 사원 건립 사업이 추진될 때만 해도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으나 재정적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까르마 가르파에 속하는 러시아불자연합회의 회장인 알렉산더 코이바가 로프와 모스크바불교협회의 주도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모스크바에는 20여 개 이상의 불교 종파가 있는데 한 종파의 불교사원이 건립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자들은 오히려 이 사원이 모든 불교 종파가 어울리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로 다른 종파들의 다양한 행사들을 수용함으로써 명상과 교육을 위한 센터를 넘어서는, 문화와 종교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시설에 앞서 탑을 먼저 건축하는 것이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표현한다.

“탑은 기도, 명상, 의례 등이 모두 이루어



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 석가의 탄생, 열반, 전법 등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탑은 모두에게 열린 화합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탑과 사원을 갖게 된다면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교리를 더 공부하면서 공통의 축제를 함께 축하할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17세기 초반이며 1741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불교를 러시아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는 칙령을 반포했다.

Voice of Russia [2014. 3. 19]

국제선센터, 베트남 이주민 불자회 발족

베트남 이주민 불자 1쌍 혼례도 올려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스님)는 3월 16일 2층 큰법당에서 베트남 이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이주민 불자회 발족식’을 봉행했다.

국제선센터 베트남 이주민 불자회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매달 한 번씩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천조스님의 지도로 ‘Invitation to Korean Buddhism’ 데일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지속해서 참여해 온 회원들이 토대가 되었다. 웬민화 회장을 비롯해 60여 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불자회는 매월 정기법회를 비롯해 연등회 제등행렬 참가, 자원봉사 등 불자로서의 신심 고취와 친목 도모, 화합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또한 베트남 이주민 불자인 프랑투어안(27세)씨와 응웬티하(27세)씨의 결혼식도 열렸다.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신랑과 전기회사에 다니는 신부는 2008년 충북의 한 사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처음 만나 인연이 되었다. 2013년 10월부터 매월

한번씩 열리는 국제선센터의 베트남 이주민 초청 정기법회를 통해 인연을 키워왔다.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식장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지만,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국제선센터는 결혼식장을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해 큰법당 공간을 내줬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통음식도 함께 만들어 제공했다. 이 결혼식을 위해 베트남에서 입국한 탁약웅 스님이 주례를 맡아 베트남 전통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탄웅스님은 “국제선센터는 국적,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불교와 수행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타국에서도 불자로서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불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제선센터 베트남 불자회 발족 및 결혼식을 통해 부처님의 법과 자비가 천강(千江)에 비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는 외국인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Saturday Meditation and Dharma Talk’(영어 명상법회),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설, 부처님 오신 날, 추석, 동지 전에 ‘한국 명절바로알기 데일리 템플스테이’, 상시적으로는 ‘Breath and Rest Templestay’, ‘Invitation to Korean Buddhism’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국제선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스님이 직접 영어로 진행할 수 있다.

글_ 국제선센터 국제팀 김용태



새해맞이 물축제 미얀마 띠잔, 태국 송크란 알아보기

◇미얀마 띠잔축제

조용한 불교의 나라 미얀마가 매년 4월 중순이면 긴 잠에서 깨어난다. 미얀마에서 가장 규모가 크면서 가장 흥분과 기쁨으로 마음 설레게 하는 축제가 4월에 약 3~4일에 걸쳐 열리기 때문이다. 미얀마 신년축제 띠잔(Thingyan, 띠장이라고 발음하기도 함), 즉 물의 축제이다. 서양에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1년을 일한다면 미얀마에서는 띠잔축제를 즐기기 위해 1년을 일한다고 할 정도로 미얀마 전제가 들쭉거린다. 시내의 주요 거리는 물 축제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형형색색의 페인트로 칠해진 단상 위에서 새해를 행복하게 맞이하고 그들의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지나가는 사람과 자동차에 물을 뿌려댄다.

◇태국의 송크란

송크란 축제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 중 하나로 새해를 맞이해 몸과 마음

을 씻어내고 복을 나눈다는 의미로 시작된 물 축제다. ‘송크란’이라는 말은 팔리어의 ‘산카라’ 또는 산스크리트어 ‘산크란티’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태양의 위치가 황도십이궁 가운데 백양자리에서 황소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불교식 음력 정월로, 원래는 양력 11월경이었던 것이 타이족 사이에서 4월 중순으로 옮겨졌다. 새해에 뿌리는 물의 의미는 정화(淨化)와 재생(再生)으로, 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묵은해의 액운을 씻어내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이 있다. 과거에는 양동으로 찬물을 끼얹는 대신, 향기로운 정화수를 은대접에 떠서 정중히 어깨에 뿌렸다. 점잖은 행사가 날이 갈수록 과격해진 셈이다. 한편 송크란 무렵은 타이에서 일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므로 한여름의 더위를 시원한 물벼락으로 식히는 의미도 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남원 춘향테마파크 일대에서 이주노동자 한국문화체험 열려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스님)은 3월 30일(일) 전북 남원춘향테마파크 일대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체험행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평소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5개국 이주노동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롭고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문화체험은 남녀간의 사랑을 모티브로 한 남원춘향테마파크 일대에서 진행했으며,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상큼한 봄내음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서로간의 화합과 정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항공우주전문대를 방문하여 별자리 관찰과 항공체험을 했

으며, 축제의 장에서는 신 춘향전을 관람하는 등 유익한 경험과 함께 교육의 장이 되었다.

한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인 완니 씨는 “한국문화체험은 몇 번 가봤지만 이번 체험은 문화 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관람이라 신선하고, 좀 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영리민간단체 ‘꿈을이루는사람들’은 2000년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직장내 폭력과 임금체불, 인권침해 예방과 이주민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따뜻한 겨울나기 등 이주민 상담과 통번역서비스, 마하이주민센터를 경북 구미에서 운영하고 있다.

꿈을이루는사람들 054-458-0755

4월 · 행 · 사 · 알 · 림

■ 방글라데시, “새해맞이 보이사비 축제”

일시_ 4월 5일(토) 오후2시 장소_ 김포 양촌 다목적체육관

■ 미얀마, “새해맞이 물축제 띠잔”

일시_ 4월 13일(일) 오후1시 장소_ 부천종합운동장

■ 행복한이주민센터, “다문화대안학교 기금마련 바자회”

일시_ 4월 20일(일) 장소_ 오산시장 앞 광장

■ 전등사, “제9회 이주민문화축제”

일시_ 4월 20일(일) 오전10시 장소_ 강화 전등사

■ 캄보디아, “새해맞이 쏘츠남 축제”

일시_ 4월 27일(일) 오전10시 장소_ 군포 체육광장

■ 연등회, 불교문화마당

“외국불교 문화 부스: 몽골, 네팔, 미얀마, 일본, 태국, 스리랑카”

일시_ 4월 27일(일) 오전 12시 장소_ 조계사앞 우정국로

■ 마주협 공동주최,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일시_ 4월 27일(일) 오후2시 장소_ 보신각앞